

#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홍지영<sup>a</sup> · 이병오<sup>b\*\*</sup>

<sup>a</sup> 농정연구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 204호)

<sup>b</sup>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 Analysis of Policy Priorities for Training Agro-healing Experts Using the AHP Method

Ji-Young Hong<sup>a</sup> · Byung-Oh Lee<sup>b</sup>

<sup>a</sup> Center for Food, Agricultural & Rural Policy, South Korea

<sup>b</sup>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y priorities for training agro-healing experts. Training agro-healing experts is an important task that should boost local community in rural areas. In order to make an efficient decision making, the study analyses priority of relevant policies using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R&D comes out first. Human Resource Development(HRD), financial support, and the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comes after R&D. In R&D, qualifications and guidelines for participants comes out the most significant issue. In the aspect of HRD,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nd utilize regional personnel such as unemployed youth and retirees from related fields. As for financial support, funding for educational facilities (i.e. classrooms and farmland for practice) is needed. In case of legal system,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recruiting experts system and qualification system certified by government.

**Key words:** Agro-healing, AHP, Human Resource Development

### 1. 서론

최근 선천적 장애 뿐 아니라 직장, 학교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이 취약해진 사람들이 농업활동을 통해 치유를 꾀하는 행위, 즉 치유농업(agro-healing)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 치유농업이란 단어가 도입되고 그 개념이 정립되는 얼마 되지 않았다. 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 이상미(2013)는 치유농업을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치유농업이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녹색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농업의 복지력(福祉力)’, ‘복지농장’, ‘원예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모두 ‘치유·치료·복지를 위한 농업·농촌 자원의 활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정의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주요어: 치유농업, AHP, 인적자원개발

\* 본 연구는 2014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No.120140155)되어, 홍지영(2016)의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으로 발전된 후,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이병오) 전화: 033-250-8662 e-mail: boleee@kangwon.ac.kr

특히,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치유 농업의 역사가 길어 이미 많은 경험과 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치유농업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복지농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유럽 및 일본에서의 치유농업 도입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대다수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압축 경제성장과 과도한 경쟁체제 속에서 심신의 장애를 얻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학교생활이나 입시 스트레스, 가정문제 등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다. 이들이 심신을 회복하여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유농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치유농업을 '심신이 취약한 사람들이 농업활동을 통해 치유를 꾀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향후 치유농업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속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의견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농업·농촌이 지니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경관 및 문화적 전통 유지'의 가치 항목에 치유(힐링), 건강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내용으로는 치유의 숲, 도시민의 심리적 안정, 아토피 치료, 청소년 정서 순화가 있다.

치유농업의 보급 및 활성화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에게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농촌이 농업을 통해 심신의 치유를 꾀할 수 있는 장소로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치유농업의 수요증대에 대응하여 공급도 적절히 확대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공급 수준은 아직 속도가 느리고 시스템도 미비한 실정이다. 치유농업은 심신이 취약한 사람들,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농학의 지식이나 농사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의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다양한 관련 영역이 함께 융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치유농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경아 & 김경희(2006)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구인을 현장 타당화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운영 및 관리 능

력', '기획 및 개발 능력', '전문가로서 헌신하려는 능력', '평가 능력'이 평생교육사 전문성의 4가지 구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박석돈(2011)은 재활상담사는 재활현장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재활상담사와 내담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상담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상담자로서의 재활상담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직업, 취업을 위한 조언, 지도,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직종에 적절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치유농업에서의 전문가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능력 등을 기르는 것 이외에 따뜻한 사람과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지도자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는 단시간에 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치유농업 전문가'라고 하는 인적자원 개발이 치유농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치유농업의 공급기능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도 '치유농업 전문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정한 조직이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조직 내에 자원과 능력을 분석함으로써 시작된다(백성준, 강일구, 류장수, & 윤성, 2005). 자원의 종류에 관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분류를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Barney(1991)는 물적자원(물리적 자원), 재무자원, 인적자원, 구조자원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인적 자원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훈련, 경험, 판단력, 지식, 통찰력 등을 말한다.

'인적자원'의 가치는 한 사람의 배경 혹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은 내적인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역량(competency)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역량이란 단순한 심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실행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수행 역량'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많다. 역량은 추상적 자원이 아닌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지식의 능력임으로 이의 발견도 중요하지만 역량의 활용과 관리도 필요하다.

Takeuchi, Lepak, Wang, & Takeuchi (2007)에 의하면 구성원들의 역량은 조직의 가치를 증대시키며 인적자원관리 제도

강화를 통해 인적자원의 가치와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의 하나로서 특정한 분야에 고도의 기술과 깊은 지식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전문가(experts)’를 규정하였으며 전문가 양성과 활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이들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조직에 미치는 효과와 성과를 증대시킨다고 제시하고 있다.

장용선, 김민수, 이강민, & 조대환(2014)은 인적자원관리의 발전은 직원들의 높은 몰입과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역량을 높여 조직효과성으로 이끌 것이라는 가정 하에, 중소기업에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김기태 & 조봉순(2008)은 인적자원관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물을 ‘인적자원관리 성과(HRM Outcome)’와 ‘조직성과(Organizational Outcome)’로 구분하였다. 인적자원관리는 일차적으로 인적자원관리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이는 최종적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민우(2008)은 조직수준의 고성과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개인수준의 종업원의 태도 즉,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서 2013년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치유농업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1년간 운영한 바 있고, 충남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015년 「홍성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치유농업 과정을 개설하는 등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임시적인 수단에 머무르고 있으며,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효과적으로 치유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도입·적용되어야 하는데, 정책수단은 많고 예산과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순위가 높은 정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계층분석법(AHP)을 통해 도출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치유농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유능한 치유농업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어 우리나라 치유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 2.1.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우선 치유농업의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미국 등에서 그린케어(Green Care), 케어파밍(Care Farming) 등의 이름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전망, 기대효과, 전문조직 구성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Hassink & Van Dijk (2006)는 네덜란드의 국립농업연구소사의 Care Farm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Care Farming분야의 농장수와 고객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치유농업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과 높은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농업 환경에 적합한 치유농장 경영·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인 지방분권, 집합적인 비용의 절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감 증가 등과 같은 경향에 의해 Care Farming의 전망은 긍정적이고 그 농장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하였다.

Hine, Peacock, & Pretty (2008)는 영국의 도시농장, 독립적인 농장, 외부기관 또는 자선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농장과 그곳에 참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Care Farming의 효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Care Farm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농작업을 하는 동안 분노, 혼란, 우울증, 긴장감과 같은 감정이 줄어든다는 것을 밝혀내어 Care Farming은 다양한 사람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폭넓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판단하였다.

Eweg & Hassink (2009)는 그린케어 농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는 고객, 관리재단,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및 농장주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전문적인 중간조직 기관을 개발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렇게 개발된 조직은 그린케어 농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나라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린케어 농업은 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에게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치유농업에 대한 참여의사와 지불의사 추정, 농촌자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 경제활동 수단으로서의 역할 등 치유농업에 관한 수요와 기대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김희동, 박정운, 이석원, & 양성범(2012)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녹색치유농업의 참여의사 및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치유농업 참여에 긍정적이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치유농업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나타났으며,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녹색치유농업 도입은 수요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석원(2013)은 선진농업국의 녹색치유농업 사례 및 효과 분석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녹색치유농장 모델 및 실천 전략 개발에 대해 연구하였다. 녹색치유농업의 확대 운영을 통한 귀농, 귀촌의 유도로 농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였으며,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생성으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Q, 이연숙, & 장재우(2014)는 선진국의 그린 케어 파밍을 분석한 후 한국의 경우 파밍이 정교하게 들어가 있는 곳은 치매시설, 요양시설, 병원 등의 실내 공간에 소규모로 특히 원예치료 분야가 활용되고 있는 정도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치유의 개념을 넘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연결함으로써 노인 개인의 경제활동 수단이 되게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및 전문조직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며, 치유농업과 분야는 다르지만 유사한 개념의 전문가, 지도자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도 있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2013)은 국의 치유농업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pool을 개발하고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영역,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이후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2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을 통해 조직, 제도, 인력, 교육, 연구개발, 법 및 예산 부문의 전략과제를 개발하였다.

치유농업 활성화 전략 중 우리나라에서 추구해야 할 목적의 우선순위는 치유농업 전담조직 구축 및 치유시설 확대와 관련된 조직 차원의 전략이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이 2·3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진 등(2016)은 네덜란드의 치유농장 대표와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하여 농장의 실질적인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 체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치유농업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체계인 MBO(1-4) 과정의 교육훈련 기관(Groenewelle, wellantcollege, nordwincollege), BEZINN(네덜란드 치유농업 지역 네트워크)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어서 국내 치유농업 분야의 고용 창출 및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체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남선(2014)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의 리더십유형과 프로그램 만족도와의 상호관련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마을단위

에서 평생교육을 주도해 나갈 리더의 리더십 유형은 마을주민의 평생교육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남선 & 안현숙(2016)은 평생교육 발전과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에 주민을 이해하고, 마을평생교육운영 및 관리기술을 향상시키며, 마을평생교육에 대한 통찰력 및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민선 등(2013)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진행과 보완대책요법을 적용한 치유활동을 실현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가정 '산림치유 지도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림학, 보건의로 및 보완대책요법 관련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방법과 평가방법을 만들었다.

이상문(2016)은 산림치유사 양성교육과정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과정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감독으로 산림치유지도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나연(2016)은 복지원에서 자격을 취득한 215명을 대상으로 직무 실태 및 직무 요구에 관해 조사한 결과, 향후 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통한 원예치료사의 전문성 확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예치료 서비스의 대상자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통합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 분야와의 연계, 도시농업, 치유농업, 산림 치유 등 유사 치료서비스와의 협업, 사회서비스 바우처, 의료보험 적용 등의 제도적 지원책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 관련 분야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선행 사례인 산림치유 지도사를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사, 기술사 자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후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 치유의 숲 기준으로 보수는 약 250만원/월이 지급되고 있다.

2015년 7월 기준, 산림치유 지도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총 13개소가 있으며, 자격증 발급 현황은 1급 34건, 2급 163건으

로 총 197건이다. 치유의 숲은 35개소가 조성·운영 중이며 2018년까지 모두 완공할 예정이다(산림청 홈페이지).

2008년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 촉진법’이라고 약칭)이 제정됨으로써 농어촌 체험지도사·농어촌마을해설사 등의 교육과정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박시현, 김용렬, 권인혜, & 류경선; 2012). 자격관리 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맡고 있으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는 인증교육이 남양주시, 순창군 등에서 진행 중이며 제주관광대학교는 농어촌관광 경영자 과정 수료생에게 농어촌체험지도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원예치료사는 원예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국내에 원예치료와 관련된 자격증은 현재 직접적인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자격은 없으며,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인 ‘복지원예사’가 있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복지원예사 양성과정을 통해서 약 8,09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2000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격 취득자는 3,379명이다.

복지원예사 양성과정 운영에 따른 수료생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양성 교육기관은 제주원예치료복지협회,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등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 22개소가 있다.

## 2.2. 계층분석법(AHP)

본 연구에서 이용한 계층분석법(AHP)은 1970년대 초반 Saaty 교수가(Saaty, 1980; Saaty, 1983) 미 국무부의 군비축소 및 무기통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능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뒤이어 행정학, 정책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방법으로 다속성, 다목적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분석기법 중의 하나이다. AHP는 의사결정을 위해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최승일, 2011). 즉, 다수의 요인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AHP의 기본 가정은 복잡한 체계를 계층적으로 분해하는 것인데, 첫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계층화하는 작업이다. 최상위 계층에는 포괄적인 의사결정의 최종목표가 위치하고, 상위계층에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위계층에 속하는 각 요소의 가중치

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즉, 상위계층의 요소 하에서 각 하위요소가 다른 하위요소에 비해 어느 정도 우수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구성된 쌍대비교행렬을 작성하게 된다(이동철, 2012).

Zahedi(1986)은 계층분석법(AHP)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제1 단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한 계층 요소를 설정하고 구조화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후 데이터 수집, 상대적 비중 추정을 위한 고유치 설정, 비율 결정 등 이론구조 자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Dyer(1990)은 계층분석법(AHP)은 도출된 순위가 임의적이라는 점에서 대체순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상 결점을 지적하였으며, 이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다요소 효용 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과 AHP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근원 & 이영(2013)은 계층분석법(AHP)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7개의 척도는 오히려 일관성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9개의 척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AHP일관성 향상을 위한 척도로 제시하였다.

윤덕찬(2010)은 조직 간의 경쟁력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외부환경요인으로 Porter의 산업조직론을 중심으로 한 준거틀을 설정, 내부자원요인으로 Barney의 자원기반이론을 준거틀로 설정하고 AHP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내부자원을 중심으로 시설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시설장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현실 & 김창대(2011)에서는 선행문헌, 전문가 면담, 진로상담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로상담전문가 역량에 관한 개념모형을 구축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역량 개념 모형의 내용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이론지식, 직무지식·수행, 태도·개인자질을 3개의 역량군으로 구분하고 연구, 전문 교육, 전문가 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등의 14개의 역량요소, 49개 역량지표를 구성하여 AHP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모든 패널은 진로상담 직무역량요소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흥기 & 이종원(2013)은 우리나라 민간경호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영전략 이론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의사결정 방법인 AHP를 활용하여 민간 경호경비 기업의 공공기관과 차별화된 자원은 무형자원이며 특히 관계자원, 고객정보자원, 기술자원 등이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 2.3.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의 교육 사례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아직 도입 초기단계로서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있다. 현 시점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정립, 국내외 사례분석, 지불의사 추정 등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일부 대학에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도입과정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이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체계, 특히 국내에서 진행 중인 ‘치유농업 지도자 과정’의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강원도농업기술원(2013)은 2013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치유농업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교육기간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되었으며, 27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농업 기초지식, 대체요법의 이론과 적용사례, 대상자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등으로, 총 185시간의 강의와 실습을 이수하는 과정이었다. 세부적인 교육내용은 농작업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텃밭 채소 재배기법, 수확물의 활용,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검사의 이론과 의사소통 기법(돌봄의 기술), 리더십 및 티칭기법 등 매우 실질적인 과정들로 편성되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직접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치유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및 일반인이었다. 과정종료 후 수료자들은 2014년 ‘한국 치유농업 지도자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그밖에도 충남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5년 ‘치유형 농업체험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나사렛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장 스텝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4박 5일간 운영하였다.

또한 2016년에 충남 태안군 및 전북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태안에서는 농촌체험의 휴양기능과 체험학습의 정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고창에서는 약용작물, 원예치료, 치유음식, 체험지도사 양성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향후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기 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현 시점에서 설사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고 해도, 공식

적인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조속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적자원의 중요성,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계층분석법(AHP)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배경을 파악하였다. 또한 강원도농업기술원의 치유농업 지도자 과정과 홍성군, 태안군, 고창군의 치유농업 교육·양성과정 운영 사례를 통해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구성원의 역량과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조직의 성과 향상 및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치유농업과 유사한 분야의 산림치유 지도사, 원예치료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 양성과정 등을 확인하였다.

이후 단순성과 명확성, 적용의 간편성과 범용성이라는 특징으로 여러 의사결정분야에서 널리 응용되어 온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서운정, 박정운, 한상연, 황대용, & 양정현, 2013)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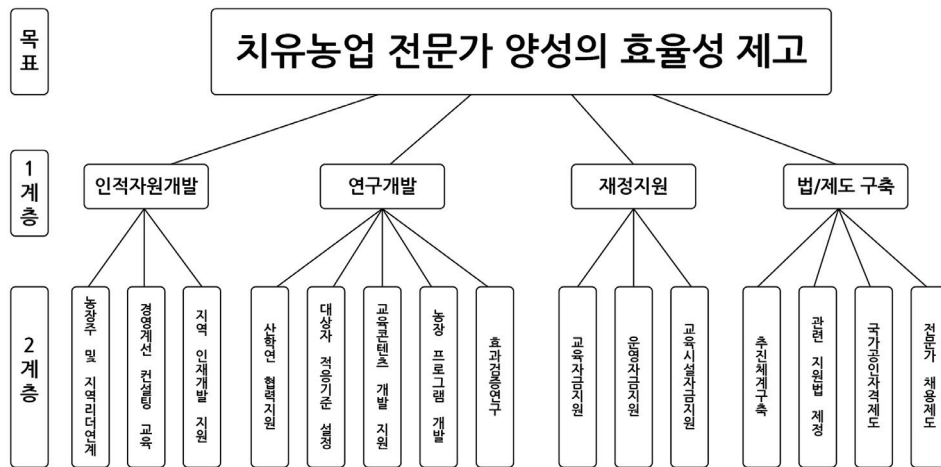
##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Satty 교수가 개발한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의 정책 우선순위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김용렬, 김태곤, & 허주녕(2014)의 연구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 AHP 계층 구조의 교육 및 컨설팅, 연구개발, 금융지원을 수단으로 설정한 것과 치유농업 전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연구(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13)에서 조직·제도·인력·연구개발·법·예산 전략을 설정한 것에 근거하여 요인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경아 & 김경희(2006)가 연구한 평생교육사의 4가지 전문성 구인요인 ‘운영 및 관리 능력’, ‘기획 및 개발 능력’, ‘전문가로서 헌신하려는 능력’, ‘평가 능력’과 진로상담전문가 역량에 대해 AHP분석을 실시한 연구(유현실 & 김창대, 2011), 산림치유 지도사 양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이민선 등, 2013)를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치유농업 연구자, 강원도농업기술원 치유농업 지도자과정 수료자와 실무자, 농촌교육농장 운영자, 원예치료사, 한림성심대학교 산림치유 지도사 과정 수료자와 실무자의 의견과 조언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그림 1> 계층구조 유형도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2단계의 계층구조를 설정하였다. 1계층의 상위요인으로는 인적자원 개발, 연구개발, 재정지원, 법·제도 구축의 4개를 설정하였으며, 2계층의 하위요인으로는 인적 자원 개발 3개, 연구개발 5개, 재정지원 3개, 법·제도 구축 4개, 합계 15개를 설정하였다.

<표 1> 1계층 상위요인의 세부내용

평가내용	주요 내용
인적자원 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경영 개선 컨설팅 지원, 지역 인재발굴을 위한 지원
연구개발	치유농업 보급과 정착을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적용기준 설정 및 프로그램 개발
재정지원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신축과 개·보수 및 부설 실습장 마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금 지원
법·제도 구축	치유농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및 관련 법 제정, 국가공인자격 제도 및 전문가 채용제도 설정

<표 1>은 1계층인 상위요인 4개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인적자원 개발에는 치유농업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인재개발 및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지역 인재발굴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며, 연구개발에는 치유농업의 보급과 정착을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적용기준 설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재정지원에는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신축과 개·보수 및 부설 실습장 마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금 지원이 포함되고, 법·제도 구축에는 치유

농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및 관련 법 제정, 국가공

<표 2> 2계층 하위요인의 세부내용

평가내용	주요내용	
인적자원 개발	농장주 및 지역리더연계	치유농업에 참여하는 농장주, 지역리더 연계체계 구축
	경영개선 컨설팅 교육	치유농업 관련 사실, 농가의 경영개선 컨설팅 지도
	지역 인재개발 지원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은퇴자 포함)를 활용한 치유농업 전문가 발굴을 위한 지원
연구개발	산학연 협력지원	정부, 연구기관, 대학이 협력하여 교육과 서비스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연계
	대상자 적용기준 설정	치유농업 참여자에 맞는 적절한 신체활동 기준(농작업), 참여자 연령을 고려한 치유농업 소재(작물, 프로그램) 설정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치유농업 전문가 자격취득에 관한 교육콘텐츠(교재·동영상) 개발 및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농장 프로그램 개발	치유농업 참여자에 맞춘 다양한 농장 프로그램 개발
재정지원	효과검증 연구	치유농업의 임상 및 심리, 신체, 사회적 변화 효과 검증
	교육자금 지원	수강료, 교재비, 실습비, 선진지 견학비 등 지원
	운영자금 지원	교육기관 및 실습농장 운영자금, 처우개선 자금 지원
	교육시설 자금 지원	교육기관 신축 및 실습농장, 위탁농장 개·보수 자금 지원
법·제도 구축	추진체계 구축	관(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도 기술원) 및 민(복지시설, 원예치료센터)과의 상호연결 추진체계 구축
	관련 지원법 제정	치유농업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법,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법, 치유농업 인증 법적 규정 설정
	국가공인자격 제도	치유농업 지도자 교육과정의 정식적으로 국가인증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구축
전문가 채용제도	교육인증농장, 치유농업 인증농가에 치유농업 전문가를 일정 부분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등 법적, 제도적 지원	

인적자 제도 및 전문가 채용제도 설정 등이 포함되었다.

<표 2>는 2계층인 하위요인 15개의 세부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인적자원 개발’은 농장주 및 지역리더 연계, 경영개선 컨설팅 교육, 지역 인재개발 지원으로 구성되었고, ‘연구개발’은 산학연 협력지원, 참여자 적용기준 설정, 교육 콘텐츠개발 지원, 농장 프로그램 개발, 효과검증 연구로 구성되었다. 또한 ‘재정 지원’은 교육자금 지원, 운영자금 지원, 교육시설 자금 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법·제도 구축’은 추진체계 구축, 관련 지원법 제정, 국가공인자격 제도, 전문가 채용제도로 구성되었다.

### 4. 연구결과

#### 4.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는 2015년 9월부터 10월, 한 달 동안 치유농업과 관련성이 있는 각계 전문가 24명을 대상으로 E-mail과 우편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그 중 유효 응답지 22부를 Excel 2010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대학원 졸업자가 63.6%이며, 경영·경제, 농학(원예 포함), 공학·조경, 복지, 산림, 교육학 전공에 근무년수 5년 이상(82%)의 연구자, 관련 공무원, 농장주, 교사 등이 많았다.

<표 3> 조사대상 전문가 그룹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비율(%)	변수	구분	비율(%)
성별	남	72.7	근무 년수	5년 미만	18.2
	여	27.3		5~9년	27.3
연령	20대	4.6		10~14년	31.8
	30대	22.7		15~19년	18.2
	40대	31.8		20년 이상	4.5
	50대	31.8	전공	농학	18.2
	60대	9.1		경영·경제	36.4
학력	고졸	4.6		교육학	4.5
	전문대 졸	0		복지학	13.6
	대학 졸	31.8	산림학	9.1	
	대학원 졸	63.6	공학·조경	18.2	

#### 4.2. 분석결과

<표 4>는 AHP 분석결과이며 1계층과 2계층의 가중치 종합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one(1986)은 CI와 CR값이 모두 0.15이하일 경우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Satty(2001)는 CR값이 0.1이하(10% 이내)에 들 경우 해당 쌍대비교 행렬은 가중값(판단)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관성 검증 결과 일관성지수(CI)와 일관성비율(CR) 모두 0.1이하로 나타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계층의 상위요인 중에서는 ‘연구개발’의 가중치가 0.340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인적자원 개발’ 0.248, ‘재정 지원’ 0.219, ‘법·제도 구축’ 0.193의 순이었다. 즉,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 할 정책이 연구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산학연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자에 맞는 기준이나 프로그램이 설정되고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유농업 전문가가 될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재정지원이나 법·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치유농업의 초기단계에서는 그에 앞서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 개발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2계층 하위요인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개발’에서는 ‘대상자 적용기준 설정’이 0.277로 가장 크고, 다음이 ‘효과검증 연구’ 0.208이었다.

이어서 ‘산학연 협력지원’ (0.186), ‘농장 프로그램 개발’(0.175),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0.154)이 뒤를 이었다. 치유

<표 4> AHP 분석결과

내용	1계층		2계층		
	가중치	순위	내용	가중치	순위
인적자원 개발	0.248	2	농장주 및 지역리더 연계	0.228	3
			경영개선 컨설팅 교육	0.341	2
			지역 인재개발 지원	0.431	1
			산학연 협력지원	0.186	3
연구개발	0.340	1	대상자 적용기준 설정	0.277	1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0.154	5
			농장 프로그램 개발	0.175	4
			효과검증 연구	0.208	2
			교육자금 지원	0.304	3
재정지원	0.219	3	운영자금 지원	0.322	2
			교육시설 자금 지원	0.374	1
			추진체계 구축	0.233	3
법·제도 구축	0.193	4	관련 지원법 제정	0.165	4
			국가공인자격 제도	0.280	2
			전문가 채용제도	0.323	1

주: 1계층 CI=0.013, CR=0.014, 2계층 인적자원개발 CI=0.008, CR=0.007, 연구개발 CI=0.008, CR=0.013, 재정지원 CI=0.001, CR=0.001, 법·제도 구축 CI=0.002, CR=0.002.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개발'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심신의 장애를 가진 치유농업 참여자(대상자)들의 장애정도를 고려한 농작업 기준 및 프로그램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치유활동이 참여자들의 신체 및 심리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형태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피드백 되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에서는 '지역 인재개발 지원'이 0.431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이 '경영개선 컨설팅 교육' 0.341, '농장주 및 지역리더 연계' 0.228 순이었다. 치유농업 전문가로서 해당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여 활용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실정을 잘 알고, 출퇴근이 용이하며, 장기근속 가능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고령화·과소화된 농촌에서 젊고 유능한 지역 인재를 발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은퇴자나 귀농·귀촌인 중에서도 적합한 소량의 인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치유농장에서 치유농업의 결과로 심신의 장애가 호전된 참여자를 치유농업 지도자로 육성한다면 효과도 클뿐더러, 가장 적합한 지역 인재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참여자(장애인)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저렇게 지도자가 되고 취업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 그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에서는 '교육시설 자금 지원'이 0.374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운영자금 지원'(0.322)과 '교육자금 지원'(0.304)이 그 뒤를 이었다. 초기단계에서는 우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농장이나 위탁농장도 구축되어야 한다.

'법·제도 구축'에서는 '전문가 채용제도'가 0.323으로 가장 중요도가 높게 도출되었으며, 다음이 '국가공인자격 제도' 0.280이었다. '추진체계 구축'(0.233)과 '관련 지원법 제정'(0.165)이 그 뒤를 이었다. 치유농업 전문가들을 양성하면 당연히 그들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관련법에 명시하여 예를 들면, 농촌교육농장과 치유농업 인증농가에 치유농업 전문가를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치유농업 전문가들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국가공인자격 제

도를 획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농촌교육농장의 경우, 치유농업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14조(농어촌 체험교육의 활성화), 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에 따라 지원 근거만 마련되어 있다.

이는 농촌교육농장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과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이외에 다른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집행력 있는 법·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 5. 결 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을 통해 선천적·후천적으로 심신이 취약한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시작단계인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인 치유농업 전문가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치유 지도사, 원예치료사, 마을평생교육지도사 등의 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과정, 진행 현황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치유농업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기존의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에서 심화되어 전문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AHP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는 2단계로 설정되었는데, 1계층의 상위요인으로는 인적자원 개발, 연구개발, 재정지원, 법·제도 구축의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계층의 하위요인에는 각각 인적자원 개발에 3개, 연구개발에 5개, 재정지원에 3개, 법·제도 구축에 4개, 합계 15개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는 2015년 치유농업 관련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계층에서는 연구개발의 정책적 중요도(가중치 0.34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인적자원 개발(0.248), 재정지원(0.219), 법·제도 구축(0.193) 순이었다. 이는 현 단계에서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연구개발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2계층의 연구개발에서는 대상자 적용기준 설정(0.277)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효과검증 연구(0.208)이었다. 이는 먼저 산학연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장애 정도나 교육레벨에 맞는 농작업 기준을 설정하고,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치유활동이 참여자들의 신체 및 심리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형태로 검증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인적자원개발에서는 지역 인재개발 지원(0.431)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과소화 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에 있는 은퇴자나 귀농·귀촌인 중에서 적합한 소양과 경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 내에 있는 치유농장 경영주 및 관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행정담당자, 농협·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지원에서는 교육시설 자금 지원(0.374)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다. 초기단계에서는 우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참여자들이 효율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실습농장이나 위탁농장이 구축되어야 한다.

법·제도 구축에서는 전문가 채용제도(0.323)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국가공인자격 제도(0.280)이었다.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제도 구축을 추진할 경우, 국가에서 교육양성기관을 지정할 것, 자격 이수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전문성을 높일 것,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지자체별로 정비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법·제도 구축은 이에 상응하는 예산적인 사항,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 인적자원 발굴을 위한 노력 등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강원도농업기술원. (2013). *치유농업 교육프로그램* 운

영 사례. 춘천: 강원도농업기술원.

2. 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 이상미. (2013). 한국 치유농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4), 909-936.
3. 김기태, & 조봉순. (2008). 인적자원관리와 조직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사·조직연구*, 16(1), 115-157.
4. 김남선. (2014).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리더십유형과 프로그램 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 *농촌지도와 개발*, 21(1), 177-217.
5. 김남선, & 안현숙. (2016).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의 특성에 따른 마을 평생교육 실천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3(1), 89-99.
6. 김용렬. (2013).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재조명*.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김용렬, 김태곤, & 허주녕. (2014).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김홍기, & 이종원. (2013). 자원기반 이론과 AHP 방법을 활용한 민간 경호경비 기업의 전략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통권 36호*, 177-200.
9. 김희동, 박정운, 이석원, & 양성범. (2012). 녹색치유농업에 대한 참여의사 및 지불의사추정: 직무 스트레스가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호텔리조트연구*, 21(3), 245-262.
10.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13).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전략 개발*. 수원: 농촌진흥청.
11. 박석돈. (2011). 미국재활상담사의 다면적 역할 고찰.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3), 49-67.
12. 박우성. (2002). *역량중심의 인적자원관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13. 백성준, 강일규, 류장수, & 윤성. (2005). *지역인적자원 개발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세종: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14. 서윤정, 박정운, 한상연, 황대용, & 양정현. (2013). 6차산업화 경영체 경영·기술수준 평가지표 개발: AHP 분석을 적용하여. *벤처창업연구*, 8(4), 177-191.
15. 송근원, & 이영. (2013). AHP의 일관성 향상을 위한 척도 재구성. *사회과학연구*, 29(2), 271-288.
16. 유나연(2016). *원예치료사의 직업 전문화를 위한 직무 실태 분석*.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유현실, & 김창대. (2011).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2(2), 241-268.
18. 윤덕찬. (2010). *AHP분석을 통한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쟁력 예측요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 이경아, & 김경희. (2006). 평생교육사 전문성 구인 타당화 및 전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에 관한 실증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2(2), 91-119.

20. 이민선, 백태선, 신희성, 이왕림, 박수진, 박찬우, et al. (2013). 통합 의료적 관점에서 바라 본 산림치유 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1(8), 227-234.

21. 이민우. (2008). 고성과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층분석 및 매개 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215-236.

22. 이상문. (2016).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녹색생명산업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이석원. (2013). *녹색치유농업의 해외 실태 및 국내 도입 전략 개발*. 부천: 유한대학교.

24. 이동철. (2012). 외식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의 핵심 역량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AHP분석을 이용하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5. 장용선, 김민수, 이강민, & 조대환(2014). 중소기업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19(3), 103-114.

26. 정순진, 김경미, 유은하, 장윤아, 이상미, & Jan Hassink. (2016). 네덜란드 치유농업 인력 양성 체계 분석을 통한 국내 치유농업 활용방안 모색. *원예과학기술지*. 34(별호 II), 228-229.

27. 최승일. (2011). AHP 분석을 이용한 금융기관 운영리스크 측정. *한국경영과학회지*. 28(3), 73-82.

28. Qi,Ting, 이연숙, & 장재우.(2014). 노인복지를 위한 그린 케어 파밍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14(1), 122-124.

29. 濱田 健司. (2013). 福祉農業のとりくみの廣がりとその可能性. *農業と經濟* 79(10), 5-17.

30. Barney, J. B.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31. Barney, J. B., & Wright, P. M. (1998). On becoming a strategic partner: The role of human resources in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Human Resource Management*, 37(1), 31-46.

32. Dyer, J. S. (1990). Remark 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anagement Science*, 36(3), 249-258.

33. Eweg, H. P. A., & Hassink, J. (2009). *Business models of green care in the netherlands*. Paper Presented at Special Session on Care Farming VII. Brazil: International PENSA Conference.

34. Hassink, J., & Van Dijk, M. (2006). *Farming for health: Green-care farming acros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Vol. 13).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35. Hine, R., Peacock, j., & Pretty, J. N.(2008). *Care farming in the UK: Evidence and Opportunities*. Report for the National Care Farmin Initiative UK : University of Essex.

36. Satty, T. L.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Planning, Priority Setting, Resource Allocation*. New York: McGraw-Hill.

37. Saaty, T. L. (1983). Priority setting in complex problems.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30(3), 140-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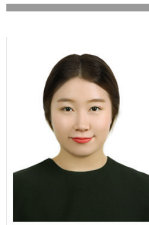
38. Satty, T. L. (2001). Decision making for leader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for decision in a complex world. Pittsburgh: RWS Publications. cop.

39. Takeuchi, R, Lepak, D. P., Wang, H., & Takeuchi, K. (2007).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mechanisms mediating between high-performance work systems and the performance of japanese organiz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4), 1069-1083.

40. Tone, K. (1989).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decision making*. Tokyo: Japanese scientific and technical press.

41. Zahedi, F. (1986).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 survey of the method and its applications. *INFORMS*, 16(4), 96-108.

Received 30 September 2016; Revised 11 December 2016; Accepted 16 December 2016



Ji-Young Hong is a Researcher of Center for Food, Agricultural & Rural Policy,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green care farming, agricultural marketing and distribution.  
Address: (06693) 204, 12, Bangbaechun-ro 2-gil, Seocho-gu, Seoul, South Korea's representative  
E-mail) mini9169@naver.com  
phone) 82-2-585-7790



Dr. Byung-Oh, Lee is a Professor at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are rural revitalization, food safety and beef economics.  
Address: (24341) Kangwondaehakgil 1, Chuncheon-si, Kangwon-do, South Korea  
E-mail) boleee@kangwon.ac.kr  
phone) 82-33-250-8662